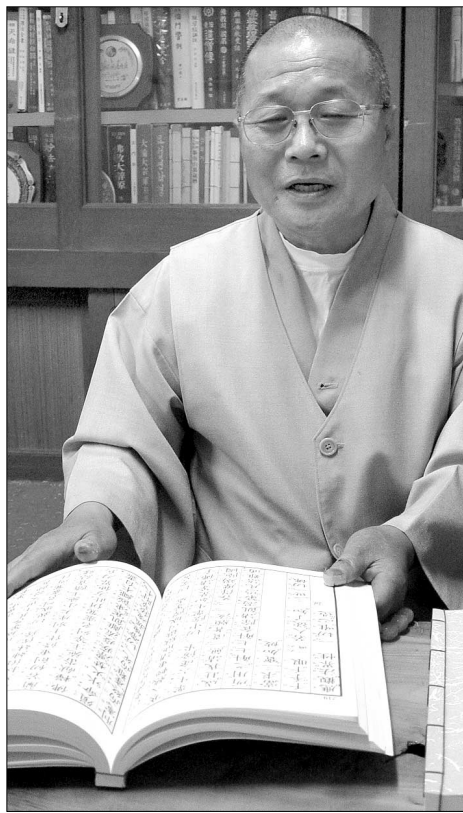


2백년 전 '작법구감' 현대어로 환생



법천 스님이 <작법구감>을 펴보이며 설명을 하고 있다.

200년전 백파(白波)선사가 순창 구암사에서 저술한 당대 최고의 불교의식집 <작법구감(作法龜鑑)> 제호 '구감'이 현대에 맞게 복원됐다.

광주 학림사 주지 법천 스님(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은 5년간의 노력 끝에 5월 15일 '전통의식 작법구감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이전에 복원된 <구감>은 백파스님이 저술한 책을 원본으로 한글음을 달고 글자마다 소리를 (四聲)을 표시해 누구나 쉽게 전통불교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부터 열불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법석에 모이도록 하는 힘이 있어 소리하는 스님을 인도(引導)라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열불송이 주먹구구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정리해야겠다고 원을 세웠다가 이제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천 스님은 25년 전 은사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구감>을 발견했다. 오래되어 너털너털해진 이 책은 그동안 말로만 전해오던 백파스님의 <작법구감> 원본 2권이었다. 스님은 <구감> 책장을 넘기며 마치 '부처님을 친견하

듯' 환희심이 일었다. 후학들을 위해 복간하기로 원을 세웠고, 5년 전부터 직접 복원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근세까지 전해오던 작법구감이 사라진 것은 한자로 되어있어 어려웠기 때문. 다행히 1931년 안진호(安震湖) 스님이 <작법구감>에 한글음을 새기고 내용을 축약한 <석문의범(釋門儀範)>을 편찬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렇

백파선사 구암사서 저술 광주 학림사 법천스님 복원 원본에 한글, 소리를 표시

지만 의식문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이 많고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알 수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백파스님의 <구감>을 원본 그대로 복원한 법천 스님은 50여 년 전 선암사로 출가해 소리를 배웠고 대흥사에서 범패를 정식으로 공부했다. 국내최초로 <구감>에 소리를 표시한 것도 이런 기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천 스님이 표기한 소리는 글자

의 좌·우측, 위·아래에 점을 찍어 표기하는 방식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은 거성으로 가장높이 구비치는 소리이고, 아래쪽 점은 입성으로 몹시 빠르게 닫는 소리이다. 또한 왼쪽 상단의 점은 상성으로 처음에는 낮고 차차 높아져서 가장 높게 그치는 소리이며, 그 아래 점은 평성으로 가장 낮고 편안한 소리이다.

이처럼 <구감>의 소리를 표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법에 맞는 열불송을 공양할 수 있어 전통불교의식 분야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다.

이렇게 <구감>복원작업을 마친 스님은 원고를 들고 서울에서 반년을 돌아다녀야 했다. 출판사마다 상업성이 없다며 일반출판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님은 다시 광주로 돌아와 사비를 들여 직접 출판까지 감행했다.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구감>을 공양할 수 있어 더욱 좋은 일입니다. 모쪼록 사찰마다 꼭 비치해 놓고 부처님 전에 여법하게 예를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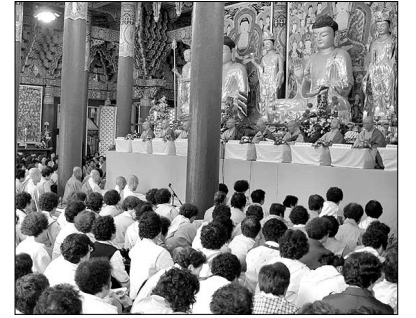
문의 (062)222-4133
광주=이준엽 기자

송광사, 삼월불사 봉행

16국사에 했자, 꽃 공양

불기 2548년 송광사 삼월불사가 5월 14-15일 양일간 송광사 경내에서 봉행됐다.

이번 삼월불사는 보성·원명·보광·통광·현산·인각·다정·현목·범종·영진 스님을 삼사월중으로 모시고 보조국사 종재를 비롯 보살계 수계산림, 가사불사 점안, 사천왕문 상량식으로 진행됐다.



5월 15일 송광사에서 열린 보조국사 종재.

15일 국사전에서 열린 불일 보조국사 종재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조국사를 비롯 송광사가 배출한 16국사전에 했자와 꽃을 공양했다.

이에 앞서 대웅전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에서 1500여명의 불자가 보살계를 수지했다.

한편 송광사는 14일 해체복원중인 사천왕문 상량식을 가졌다. 이번에 복원되는 사천왕문 사천왕에서 보물급 성보문화재가 발견되어 일련에 공개된 바 있다.

이준엽 기자

충주 석종사, 대웅전 준공법회

해국 스님 "전통 선도량 계승"...매일 첫 토요일 정기법회

충주시에 전통 선 수행도량으로 대가람 석종사가 들어서면서 5월 15일 열린 대웅전 준공법회는 스님 5백여 명을 비롯 8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20년 전 해국 스님이 추진해온 석종사 불사가 본격적인 건축을 조성해 해온지 3년 만에 거행된 대웅전 낙성법회에서 석종사 급부선원장 해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주자 시주자 동참불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도인을 탄생시키는 선도량으로 계승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여 스님(봉화 출서사 주지)은 법어를 통해 신심과 남다른 노력과 정진 속에서 불사는 성취됨을 강조하고 석종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암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석종사는 현재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채 등 7개동의 건축불사를 1차 회향했고 이어 재가선방 등을 신축해 명실상부한 한국 선 수행도량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선원장 해국 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는다. (043)854-4505
강유신 기자

사부대중 하나된 화합·나눔의 마라톤

16일 경주 남산 통일전에서 열려 2천여명 참가, 선원스님들 눈길

불교계가 최초로 마련한 마라톤대회가 5월 16일 경주 남산 통일전에서 열렸다.

대구경북 5개교구본사와 경주시가 주최한 제1회 경주남산 산길 마라톤대회는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 스님, 불국사주지 종상스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Km 하프코스나 10Km의 산길 마라톤코스, 5Km의 걷기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가 처음 주최한 이 대회는 장애인학생 4명에게 전동휠체어를 전달하고, 스님과 장애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5Km 걷기에 참석하는 화합과 나눔의 어울림마당이 됐다.

불국사 승가대학 스님들의 법고사연과 골굴사 선무도 시범에 이어 종상스님의 대회선언에 이어 달리가 시작됐다.

불국사 선원에서는 선원장 스님을 비롯해 7명의 스님이 10Km에 출전해 눈길을 끌었고, 금오 치매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구미전자공과 동호회 인터넷 회원

의 도움을 받아 치매어르신 7명이 참석했다. 강아지와 함께 마라톤을 즐기는 애견클럽동호회의 이색풍경도 있었다. 아베의 산길 마라톤을 격려하고 엄마랑 걷기에 동참한 아이들도 보였다.

5Km 걷기를 완주한 법타 스님은 "이 대회가 개인의 건강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봉축의 의미, 하나되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은해사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마라톤 대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과 재가, 장애인, 남녀노소가 어울리는 화합의 마당, 축제의 장으로 화려했다. 이 대회를 기획한 대화운영위원 진오스님(구미사회종합복지관 부관장)은 "불교문화유산이 있는 산길 코스를 택해 다른 마라톤 대회와의 차별성을 두었다"며 "이 대회를 통해 불교의 역동성과 화합 나눔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스님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출발지점을 막고 있다.

뷰티풀~ 부처님 생신 축하해요 외국인 55명 연등만들기 참여

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회장 김건웅)가 '외국인과 함께 연등만들기' 행사를 5월 16일, 흥남사주지 심사를 찾은 외국인 55명의 표정을 밝기만 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나라별 연등도 연등을 만들며 환하게 밝아지는 표정은 한결같다.

한나래문화재단의 76회째 행사로 오색의 팔각등과 연꽃등을 만드는 시간에 이어 흥겨운 사물놀이로 이어져 외국인들의 흥을 돋웠다.

알록달록이 외국어대 교수는 "만들 때마다 연등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낀다"며 웃어보였다. 와다와베 동주대 교수, 필리핀 출신의 안트넷 등은 한나래 문화재단의 행사로 인연이 닿아 한나래문화재단의 고운을 맡아 외국인 포교를 돕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포교를 위해 시작된 한나래문화재단의 전통문화체험은 그동안 차만 들기, 송편 만들기, 율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천미희 기자

청화 큰스님 탐방기 '성자의 삶' 출판 기념회



<성자의 삶> 출판기념법회에는 5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입적한 청화큰스님의 행장과 수행자 탐방기를 엮은 <성자의 삶> 출판기념회가 5월 19일 광주 상록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성륜사(주지 도일)와 성륜사 신도회(회장 정해숙)가 마련한 이날 기념회에는 지선고 불총림 유나, 현산(회암사 선원장), 두백(백암사 주지), 용타(백산문도회) 스님 등 문도 스님과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교수, 소설가 남지심씨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재가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향림사, 린포체 초청법회

티벳 블루 텐징 노루부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및 만다라 친견 법회가 5월 19일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향림사 조실 천은 스님은 '린포체가 자리한 이 법회는 불교의 오체인 율회를 증명하는 법회이다'며 '불자라면 요행수에 의지하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정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대구신도회 찬불가 경연대회 경북불교대 합창단 대상 수상

대구광역시 신도회가 주최하는 전국찬불가경연대회가 5월 15일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려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합창단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반야합창단이 수상했다. 또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불로사 름비니 어린이 합창단이 수상했다.

배지선 기자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전운덕	교육부장	김용암
총무부	총무부장	박덕수	사회부장	김무원
교무부	교무부장	변춘광	규정부	조진덕
재무부	재무부장	남궁도재	종정사서실장	이문덕

총의회

총회의장	윤덕산	총회부의장	박노승
총회부의장	장도정		

감사원

감사원장	주정산
감사위원	김경천

중앙신도회장	김유혁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금강대학교 총장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043) 423-7100~8 / 팩스 043) 420-7399

清心淨土

2548 BUDDHA'S BIRTHDAY

卽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의 중흥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孝 庵 淨	宗議會議長	鎮 山 明
教育院長	孝 惠	查監院長	鎮 然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